

# “16강 조기확정하자” 김은중호 사기충천



### 26일 온두라스와 2차전... 승리 맨 '떼놓은 당상' 역대 전적 2전승... 이승원·이영준 골 감각 기대

#### U-20 월드컵 F조

'어게인 이승원! 어게인 2019!'

'난적' 프랑스를 격파한 김은중호가 두 번째

상대인 온두라스를 맞아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 조기 확정'에 도전한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26일 오전 6시(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1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승점 0·골 득실 -1)를 2-1로 꺾고 1승(승점 3·골 득실 +1)을 기록, 역시 온두라스(승점 0·골 득실 -1)를 2-1로 물리친 캄보디아(승점 3·골 득실 +1)와 F조 선두 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최상의 '2차전 시나리오'는 한국이 온두라스를 꺾고, 캄보디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최소 2위 자리를 확보, 캄보디아와의 3차전 결과에 상관 없이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한다.

더불어 2승을 확보하면 조 3위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더라도 3위 6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와일드 카드 티켓'을 품을 수 있다.

2019년 대회 준우승 신화의 재현에 도전하는 김은중호는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골치 아픈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두라스와 2차전 승리가 필수적이다.

김은중호의 분위기는 좋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 준비에 앞서 소속팀에서 쉼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의 '실전 감각'과 '경기 체력'에 대한 걱정이 컸다.

김은중 감독은 아르헨티나 입성에 앞서 열흘 동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약점 지우기'에 집중했고, 현지에서 치른 두 차례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공교롭게도 지난 1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

린 팔메iras U-20 팀과 평가전에서 골 맛을 봤던 이승원(강원)과 이영준(김천)은 프랑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한국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전지훈련의 효과가 실전에서 그대로 나타난 좋은 사례다.

김은중호는 온두라스와 2차전에서도 프랑스전 1골 1도움에 빛나는 이승원을 비롯해 기막힌 헤더를 선보인 이영준의 골 감각에 기대를 건다.

온두라스는 U-20 월드컵에서 통산 8차례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해 치러진 북중미 U-20 챔피언십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4강 성적으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한국은 온두라스와의 U-20 대표팀과 역대 전적에서 2전승(2005년 2-1 승, 2017년 3-2 승)으로 앞서있다.

다만 방심은 금물이다.

김은중 감독 역시 프랑스전 승리 이후 "온두라스, 캄보디아와의 경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첫 경기가 끝났으니 두 번째 경기도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온두라스도 한 방이 있는 팀이다.

아프리카 예선에서 2위로 본선에 오른 캄보디아를 상대로 1-2로 석패했다. 경기 막판 동점골을 넣었지만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득점자의 오른발이 최종 수비수보다 살짝 앞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게 아쉬웠다.

온두라스에서 눈여겨볼 선수는 캄보디아전에서 헤더로 동점골을 터트린 마르코 아세이투노(레알 에스파냐)다.

아세이투노는 소속팀에서 주로 왼쪽 날개로 뛰지만 대표팀에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맡는다.

특히 2022 북중미 U-20 챔피언십에서 6골(패널티 킥 2골 포함)을 터트려 득점 랭킹 공동 2위에 올랐고, 대회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린 만큼 한국 수비수들의 '경계 대상 1호'로 꼽힌다.

/연합뉴스



23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멘도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한민국 대 프랑스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이영준(오른쪽 두번째)이 골을 넣은 후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 “한 경기 이겼다고 일희일비 안 해... 온두라스전 초심으로”

### 김은중호 '수비의 핵' 김지수

“프랑스전 한 경기 이겼다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김은중호의 센터백 김지수(성남)는 초심으로 돌아가 온두라스와의 2차전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은 아르헨티나에서 치러지고 있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의 '5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1차전에서 '우승 후보' 프랑스를 거꾸러뜨리는 이변을 일으킨 김은중호는 한국시간으로 26

일 오전 6시에 kick오프하는 온두라스전에서도 승리하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지수는 24일 “프랑스전이 워낙 쉽지 않은 경기여서 많은 것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몸이 좀 무거운 상태”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회복해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전 한 경기 이겼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두라스전도 다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골 1도움을 올린 '캡틴' 이승원(강원), 프랑스의 맹공을 몸 던져 막아낸 골키퍼 김준홍(김

천) 등이 프랑스전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가운데, 포백 수비라인의 한 축으로서 끈질긴 수비를 펼친 김지수의 활약도 이를 못지않았다.

김지수는 “경기 중에 정신 차리라고 외치고 욕도 했다. 라인을 빨리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해서 소리를 많이 쳤던 것 같다”며 웃었다.

김지수는 지난해 성남 구단 최조로 준프로 선수로 등록, K리그 통산 최연소 출장 기록을 세운 선수다.

192cm의 장신으로 제공권 장악·몸싸움 능력이 장점인 그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퍼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지금까지는 보너스... 지금부터 진짜 GO! 종욱”



### KIA서 두 번째 시즌... 3할대 치며 기대 이상 활약 “동료들 부상으로 얻은 기회... 부상없이 시즌 땡 것”

KIA 타이거즈 고종욱(사진)이 '진짜 무대'를 위해 이를 악물었다.

KIA의 2023시즌 봄은 부상과 기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야수진의 출발상 속 기복 많은 시즌 초반을 보냈다. 아쉬움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뜨거운 그라운드에서 봄을 맞은 외야수 고종욱이다.

고종욱은 지난해 KIA에서 새출발했다. SSG에서 방출 아픔을 겪었던 그는 테스트를 받았고 '천적'으로 활약했던 KIA 선수가 됐다.

그리고 2022시즌 62경기에서 나와 114타석을 소화하면서 0.283의 타율로 14타점을 만들었다.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고종욱은 지난해와 같은 7000만원에 KIA와 1년 재계약을 했다.

KIA에서 두 번째 시즌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다.

고종욱은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진행된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합병 퓨처스 캠프에서 겨울을 보냈다. 2차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는 합류했지만 나성범, 소크라테스가 버티고 있는 외야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술한 난관을 딛고 고종욱은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23일까지 32경기에서 86타석을 소화했다.

4월 8일 두산전에서 대타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됐던 고종욱은 23일 한화전 홈런까지 0.313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팀의 부상 위기 속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고종욱은 “만족 못하겠다”고 평가했다.

고종욱은 “삼진 비율이 너무 높다. 삼진을 먹으면 화가 많이 난다. 삼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26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22개의 삼진도 기록했다. 삼진에 대한 반성 이유는

‘기회’다.

고종욱은 “삼진은 그대로 기회가 끝나는 것이다.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려면 그만큼 집중해야 한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마음 고생도 했지만 고종욱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성범의 부상 이탈로 기회를 잡은 고종욱은 지금부터 진짜 경쟁이라고 말한다.

고종욱은 “힘 안들었다면 거짓말이고 시즌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다. 좋은 기량을 가진 후배들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부상자가 있어서 한 자리가 생겼다. 기회가 많이 안 오니까 기회를 잡아서 계속 좋은 성적으로 가고 싶다. 그게 목표이자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더 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팀이)나에게 바라는 건 중요한 순간에 치는 것이다. 계속 연습하고 있다. 어떻게 컨디션을 끌어 올릴지, 컨디션 안 떨어지고 땡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일상에서도 루틴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야구장에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으로 얻은 기회, 부상 없는 시즌이 또 다른 목표이기도 하다.

고종욱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수들이 자기 관리에 힘쓰면 조금은 부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팀에서 부상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부상자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뒷심이 있다. 여름에 체력 관리 잘하면 지난해 5위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가 더 많이 도와야 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기, 더 좋은 기록을 남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6~28일 LG전 이벤트... 조나단·브레드 시구

KIA 타이거즈가 26~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LG 트윈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이벤트를 연다.

26일에는 광주 동성고 출신 '크리에이터' 조나단 씨(Jonathan Yiombi)를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갖는다.

조나단씨는 개인 SNS에 경기 직관을 몇 차례 인정한 KIA 열성팬으로 유튜브와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이다.

조나단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2008년 한국에 정착했고, 동성고를 졸업한 뒤 2020년 한국 외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고향과도 같은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 홈경기 시구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전했다.

KIA는 브레드이발소 시리즈도 연다.

27일에는 브레드이발소 데이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 5일 브레드이발소와의 컬래버 영상을 공개했던 KIA는 오프라인 행사도 마련했다.

이날 시구는 브레드이발소의 메인 캐릭터인 브레드라고 하고, 시타는 윌크가 맡는다. 클리닝타임엔 두 캐릭터의 댄스 공연도 펼쳐진다.

시리즈 기간 경기장 중앙출입구에 브레드이발소 포토존도 운영한다. 포토존에는 2m 크기의 브레드 에어 별린이 설치된다.

27~28일에는 야구장 곳곳에서 브레드와 윌크 탈 인형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전광판 이벤트를 통해 팬들에게 인형, 머그컵 등의 상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LPGA '매치퀸' 지은희 “매치 플레이는 두려움 없어야”

### 오늘 매치플레이 개막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벅크 오브호프 매치플레이(총상금 150만 달러) 타이틀 방어에 나선 지은희가 매치 플레이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은희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4일(한국시간) 디펜딩 챔피언 기자회견에서 “매치 플레이는 두려움 없이 경기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작년에도) 실수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보다 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은희는 지난해 결승에서 후루에 아야카(일본)를 잡고 LPGA 투어 통산 6승을 따냈다. 특히 당시 36세 17일로 한국 선수 L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좋은 기억이 있는 이 대회 출전을 앞둔 지은희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다. 기대가 크다. 아직 지난해 우승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에도 행운이 계속되고, 좋은 경기를 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우승해서 기뻐하지만, 아주 체력적으로 힘들었다”는 지은희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매치 플레이를 우승할 수 있다. 스스로를 잘했다고 칭찬했다. 덕분에 US여자오픈 출전권도 얻었다. 보람이 있었다”고 우승 당시를 돌아봤다.

지난해 조별리그 3번째 경기 때 18번 홀에서 타이틀 만들면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지은희는 “16강 진출 이후부터는 좋은 기억만 있는데 (조별리그) 3라운드 경기만 생각하면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